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외식업계 '펫코노미' 바람

‘국제 강아지의 날’ 반려동물 동반 카페 가보니...

강아지와 입장하는 보호자 발길 매장 활기
식품위생법 개정...카페·음식점 출입 가능
반려가구 591만 시대...관련 소비시장 확대



23일 동구 동명동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 '오키'에 보호자와 함께 온 강아지 모습.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함께 식사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반려 동물과 공생하는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업계에 ‘펫코노미(Petconomy·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이나 산업)’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 ‘오키’.
이곳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이라는 안내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카페 안에는 보호자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입장하는 손님을 반기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부 반려견은 전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반려견들은 케이지 안에서 차분히 머물며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매장은 활기를 띠는 분위기였다.
매장을 찾은 김모(34)씨는 “예전에는 반려견을 맡길 곳을 따로 찾아야 해 불편했는데, 이제는 함께 외출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어 훨씬 자유로워졌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공간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하며, 반려 인구는 1천546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부도 제도 개편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반려동물 동반 외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외식 선택권이 넓어지는 한편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동반 출입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된 것은 아니다. 업소는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실제 출입 시에는 접종 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 목줄 고정 장치 등 별도의 관리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차단해야 하며,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음식 제공 시에는 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사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환기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준비 중인 최모(42·여)씨는 “반려인 고객이 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한 초기 비용과 인력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강아지의 날은 지난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제정된 날이다. 세계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고 사랑하자는 취지와 함께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태호기자



광주신세계 로컬푸드 직매장 재단장 23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고객들이 야채와 채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첨단산단경영자협의회 신임 회장에 최무진 대표 선출

이·취임식 행사 연기...내실경영 집중
“지역 산업 혁신 성장 주도 플랫폼 최선”



최 회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사 간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가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지속되는 대내외적 경기 불황과 불안정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매년 정기 총회와 함께 진행하던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오는 6월 이후로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려한 행사보다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신임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회원사 간 비즈니스 매칭 확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태호기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23일 “지난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제13대 신임회장으로 (주)나눔테크 최무진(사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례 행사를 넘어 첨단단지 내 기업 간 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제13대 회장으로 추대된 최무진 신임 회장은 (주)나눔테크를 이끌며 혁신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지역 대표 기업인이다.

광주상의 ‘워라벨+4.5 프로젝트 간담회’ 성료

‘4.5일제 도입 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및 노무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라벨+4.5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의 ‘워라벨+4.5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워라벨+4.5 자문 상담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참여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워라벨+4.5 프로젝트’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 내 일 생활 균형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수준(전면 부분도입)과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미만 단축하는 ‘부분도입’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전면도입’ 기업에는 월 40만~50만원이 지원된다. 생명 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에는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되며, 신규채용이 이뤄질 경우 월 60~80만원의 별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노무 전문가를 기업별로 1:1 매칭해 ‘워라벨+4.5 프로젝트’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워라벨+4.5 프로젝트 자문 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윤리 ▲프로젝트 인식 확산 ▲참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전은영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 기업들이 보다 쉽게 워라벨+4.5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워라벨+4.5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자문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3)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만기자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임재만기자

Sulwhasoo

다시 짙어지지 않고*
맑게 이어지는 피부
설화수 자정앰플세럼

*사용 중단 1주 후 채소·침착 유자민제적용시할결과, 시험기간:2024.10.28~2024.12.31, 시험대상:30~55세여성 31명